

어린이 책꽂이

▲아빠는 1등만 했대요=‘상계동 아이들의 작가 노경실의 첫 번째 그림책, 아들이 뭐든지 1등만 했대요’

▲이두호의 가라사대=만화가 이두호가 오성과 함음으로 유명한 이항복과 이덕형 등 역사 속 기인들에 대한 21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노란 기사의 비밀=독일의 증경작가 루돌프 헤르푸르트의 장편동화, ‘이혼’과 ‘유괴’라는 큰 사건 속에 놓인 두 아이의 이야기를 추리소설적 기법을 활용해 풀었다.

▲할까 말까?=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다 쉽게 풀어낸 그림책, 어린이들이 수학을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느낄 수 있도록 논리적인 사고과정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노란 기사와 비밀=독일의 증경작가 루돌프 헤르푸르트의 장편동화, ‘이혼’과 ‘유괴’라는 큰 사건 속에 놓인 두 아이의 이야기를 추리소설적 기법을 활용해 풀었다.

인생을 관통하는 사소 하지만 놀라운 진실

로즈버드 피에르 아슬린

한때 미국 거대신문의 발행인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다가 고독에 빠진 한 남자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 임종의 순간에 그는 인은 눈 내리는 풍경이 담겨있는 수정구슬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린다. ‘로즈버드... 로즈버드... 로즈버드...’

한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사소하지만 놀라운 진실을 품고 있는 것, 그 사람의 본질을 폭로하면서 그간의 편견과 인식을 배반하는 사소한 것, 그것이 바로 로즈버드다.



사진 왼쪽부터 영국의 다이애나비, 프랑스 사진작가 브레송, 화가 피카소.



발견해 본다. 현대 포토저널리즘의 아버지로 불리는 프랑스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 ‘찰나의 순간’ 포착에 전착했다 그는 미술관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할 때마다 자신의 접시식 의자를 펴고 앉았으며 조용히 몇 시간이고 그 의자에 앉아 그림들을 감상하곤 했다.

시대와 불화 겪는 舞姬 최승희의 삶

나는 춤이다 김선우 지음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적 무희(舞姬)였던 최승희가 소설 속 주인공으로 살아 돌아왔다. ‘내 허가 입속에 갇혀 있길 거부한다’의 시인 김선우가 최승희를 주인공으로 한 첫 번째 소설 ‘나는 춤이다’를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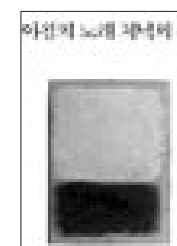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항지우씨 등 동료 시인들의 작품 감상

아침의 노래... 나희덕 엮음

김수영문학상, 소월시문학상 등을 수상한 시인 나희덕(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씨가 동료 시인들의 작품을 묶어 ‘아침의 노래 저녁의 시’를 펴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코맥 매카시 '로드'

어떤 낙관주의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익숙한 주제인 지구 온난화나 식량의 고갈, 핵전쟁의 위기 같은 문제를 여기서 또 거론하려는 것은 아니다.

참혹한 세계 생존의 법칙들



2007년 풀리처상 수상작인 코맥 매카시의 '로드'는, 세계에 대한 비극적 인식의 결과라는 점에서 그의 전작들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가 있다. 개인적 존재에 대한 성찰보다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탐구를 하고 있는 작가 코맥 매카시는, 탐욕스러운 이 세계의 미래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지 않는다.



하재봉 (시인·영화평론가)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대인동상일부동산, 일가공인중개사,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현대공인중개사,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and 한일지도판매(주). Each ad lists property details,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